

임실군, 임실N치즈붕어빵 첫선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연구·개발, 특허출원 예정 고다치즈·모짜렐라치즈·국내산 쌀, 감칠맛 상승

임실군은 대표 관광지로 급부상한 전라북도 보물섬 옥정호 붕어빵을 찾아온 수많은 관광객들이 아쉬워했던 붕어빵을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멀리서 바라보면 금붕어 모양과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 붕어빵이 출렁다리 개통과 함께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지역특화 먹거리 임실N치즈붕어빵이 오는 9일 첫선을 보인다.

옥정호 출렁다리 입구에 위치한 임실엔치즈하우스 옥정호점에서 판매를 시작하는 임실N치즈붕어빵은 대한민국 원조 치즈 브랜드인 임실N치즈와 유기농 우리밀, 유기농 흑설탕, 버터 등 우리 몸에 좋은 재료들을 넣은 달콤짭짤한 맛과 바삭함이 으뜸이다.

특히, 임실N치즈붕어빵은 임실에서 생산되는 모짜렐라치즈와 6개월 숙성된 고다치즈, 국내산 쌀을 넣어 감칠

맛과 고소한 맛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했다.

더욱이 이 제품은 임실치즈산업의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가 연구 과정을 거쳐 개발해 낸 제품으로 믿고 신뢰할 만한 안전한 먹거리다.

반죽의 경우 일반 붕어빵과 차별화된 반죽을 사용하여 식어도 바삭한 식감을 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 같은 특별한 레시피는 특허출원할 예정이다.

가격은 고품질의 고다치즈, 모짜렐라치즈와 유기농 재료들의 단가를 감안하면서도 관광객들의 부담을 고려해 1개당 1,500원으로 책정했다.

현재 옥정호에서 만날 수 있는 간식거리로 구워 먹는 치즈, 임실치즈피자와 더불어 새롭게 선보이는 특별한 임실N치즈붕어빵은 관광객들에서 선택의 폭을 넓히며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옥정호 붕어빵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에 맞춤형 먹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붕어빵을 먹기 위해 붕어섬을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덩달아 늘어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또한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임실치즈페스티벌에서 개최되는 산타축제에서도 임실N치즈붕어빵을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지역특화 먹거리 임실N치즈붕어빵이 오는 9일 첫선을 보인다.

순창군, '청소년 정책 활성화' 청소년 정책포럼 개최

토론 및 정책 아이디어 공유

순창군이 지난 6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정책 활성화' 위한 지원기관별 제언'이라는 주제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순창군 청소년정책의 현재와 청소년활동, 교육, 진로, 마음건강, 지역화 등 다양한 정책 방향의 변화에 대한 인식 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종합해 마련했다.

행사는 순창군청소년기관(순창군청소년수련관, 순창청소년문화의집, 북흥청소년문화의집, 순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과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역단체(순창마을학교 협동조합, 순창교육희망네트워크)의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이상은 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순창청소년문화의집(송유주영 관장) △어린이청소년의회(김수연 청소년) △순창마을학교 협동조합(신수영 사무국장

△순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박은미 센터장) △북흥청소년문화의집(최수연 관장) △전주YMCA(조정현 사무총장) 순서로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の内容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순창교육희망네트워크 구준희 정책부장의 사회로 플로어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다양한 현장 전문가들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소방, 동절기 축사시설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

순창소방서(서장 박덕규)는 내년 1월까지 겨울철 축사시설 난방기기 사용으로 전기화재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관내 축사 975개소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전북 축사시설 화재는

총 132건의 화재가 발생해 약 107억원에 가까운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화재 원인은 전기에 의한 화재가 53건(40%), 부주의가 34건(25%), 기계에 의한 화재는 8건(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서는 축사시설 화재 예방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관계자

대상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전기화재 예방법에 대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매주 첫째·넷째 주 금요일 안전 메시지 전송 △자율안전점검표 활용 관계인 지원 △최근 축사 화재 사례 전파 및 전열기구 사용 등 안전 수칙 교육 △노후 전기시설 등 개선 권고 △소방차 통행로 확보 요청 등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특별교부세 23억원 확보

주차장조성·상하수도정비·교량재가설 등 4개 사업 반영

최영일 순창군수가 최근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오가며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강행군을 펼쳤던 발표 행정이 특별교부세 확보라는 소기의 성과로 나타났다.

순창군은 국도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하반기 특별교부세 23억원을 확보해 군정 현안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로써, 민선 8기 최영일 군수는 상반기 23억원과 하반기 23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46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추가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삼진강 뷰라인 주차장 조성 7억, △강천산 군립공원 내 상하수도 관로 정비사업 5억, △쌍치 원옥교 재가설공사 8억, 경천 하상정비사업 3억원 등 총 4개 사업이다.

그중에서 '삼진강 뷰라인 주차장 조성사업'은 체계산 출렁다리를 찾는 방문객들의 교통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이번 예산 확보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아 조기에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강천산 군립공원 내 상하수

도 관로 정비사업'은 여름철 악취 민원과 노후된 상수도 관로로 인한 수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상수관로신설을 통해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쌍치 원옥교 재가설공사'는 원옥마을, 무동마을, 민수마을 등 세 마을을 잇는 교량인 원옥교를 이용하는 주민이 많은 뿐만 아니라, 정밀 안전점검 결과 D등급으로 재가설이 시급한 상황으로, 이번 사업비 확보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교통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순창읍에 위치한 경천에 하천 준설사업을 추진해 집중 호우 시 하천 범람으로 인한 하천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과 주민 안전을 위한 소중한 예산"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나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지역에 필요한 현안사업을 적극 설명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이 지난 6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김영식 순창부군수 등 평생교육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평생학습 협의회'를 개최했다.

순창군, '2023년 평생학습 협의회' 개최

순창군이 지난 6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김영식 순창부군수 등 평생교육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평생학습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촉직 의원 7명과 당연직의원 4명으로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순창군 평생교육 협의회는 평생교육 진흥계획 수립 및 지원,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협력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순창군의 2023년 평생교육 주요 성과, 2024년 평생교육 추진 계획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져 순창 평생교육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평생학습도시 순창군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기타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식 순창부군수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서 평생학습기관 간 협력과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었다"면서, "순창군민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보건소, 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가 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와 관련해 홍보에 나섰다.

지난 7월 27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이 시설 경계선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됐다.

개정된 법안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되며 2023년 8월 16일부터 2024년 8월 16일까지는 과도기적으로, 이번 법 개정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방지하여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한용재 남원시 보건소장은 "이번 금연구역 홍보로 인해 간접 흡연의 피해를 줄이고 지속적인 금연구역 관리로 금연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농기센터, 명품 농업대학 졸업식 가져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에서는 7일, 전문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운영한 명품농업대학 제14기 졸업식을 가졌다.

제14기에는 학사일정을 여성 농업인반, 미래농업반, 드론농기계반 등 3개 과정을 지난 3월부터 운영했으며, 11월까지 9개월간 이론, 실습·현장 견학을 추진해 90명 입학생 중 8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게 됐으며, 전반기 시의회 의장은 총학생 총무에게 모범상을 시상하고, 농협중앙회 오영석 시지부장은 우수학과상 시상과 100만원의 장학금을 회사했다.

대학장인 최경식 남원시장은 졸업장과 공로상을 시상하고 축하 인사와 함께 지역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